

## 한국의 중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이 종 진  
(이화여대)

---

Lee, Jhong-jin (1999).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Korea.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 215-238.

This study is designed to suggest a new direction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Korea. With this goal,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provided for high school teachers and college professors of Chinese. Results show that it is much needed to develop teaching methods of pronunciation, practical teaching materials, multimedia, small group activities, and team teaching with native speakers. The study also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Chinese language education.

---

### I. 서언

우리 나라의 중국어 교육의 역사는 유구하나 韓中 수교를 전후로 해 중국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80년 이후로 50여개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를 비롯한 중국학과와 중국어과가 증설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5개 대학(5개 전문대학의 관광중국어학과를 포함)<sup>1)</sup>에 과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에서도 90년 이후로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해 많은 학교에서 중국어 반을 개설함으로써 현재 서울시에만 43개교가 중국어반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43개교가 중국어 반을 두고 있으므로 90년 초의 상

---

\* “이 논문은 199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1) 한국중어중문학회의 기관지 《중어중문학》 제24집의 부록자료를 참조하였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황과 비교하면 증가한 정도가 현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중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핌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중국어교육 현황을 파악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학계가 이 같은 작업을 자주 시도하지 않은 관계로 통계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인용한 자료가 전국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함이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고등학교 현황에 관한 자료는 서울 경기 지역을 위주로 하였고 대학의 자료는 한국중국어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입수하였다. 본고는 미성숙된 여건에서 片鱗을 통해 전체를 간음해 보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본 報告를 端緒로 보다 본격적인 보고서나 논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어

한국·일본·월남 등과 같은 동아시아의 민족들은 한자를 매개로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해 왔기에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문화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연속성’과 ‘동일성’을 지닌 문화 공동체를 구축해 왔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각 민족들은 한자를 통해 우수한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고 또 민족마다 개성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각 문화를 더욱 풍요롭고도 다채롭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한자’는 언어의 의미를 표기하는 뜻글자로서 글자꼴에서 음의 정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문자체계였다. 한자로 쓰여진 중국어 문장이 각 지역에 전해지면 한자의 음은 그 지역의 언어와 연계되었다. 그래서 북경인은 북경어로 읽었고 상해인은 상해어로 읽었고 광둥인은 광둥어로 읽었으며, 또 한국인은 中古 시기의 한자음이 반영된 한국 한자음으로 읽었고, 일본인은 5-6세기의 중국 동남 연안 일대의 방언이 반영된 吳音이나 7세기의 중국 화북일대의 어음 흔적이 남아있는 漢音으로 읽었다. 설령 각 지역의 한자음간에 약간의 대응규율이 남아 있었지만 어음의 차이 때문에 전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자음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시대를 따라 변하더라도, 한자의 형태와 의미는 크게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아서, 한자로 쓰여진 漢文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승될 수 있었다. 즉 몇 천년 전에 쓰여진 古書를 보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지방의 사람들과도 筆談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자의 특징에 연유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어는 주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회화 위주보다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독해 위주로 발전하여 왔다. 또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口語보다 문장에서만 쓰이는 글인 文言이 중시 되었으므로 문언의 학습에 주력하였다. 동아시아의 각 민족들은 문언으로 쓰여진 經典이나 시·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각자의 한자음으로 읽어내었다. 곧 문언으로 쓰여진 문장 형식은 독음할 때에는 어음상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불편하지 않았다. 일상 언어인 구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문언은 시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해도 그다지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문언으로 쓰인 중국어가 바로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용어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漢語가 문언의 전통을 유지해 온 것은 동아시아를 문화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던 우수한 점인 동시에 한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말이 발음할 음의 수가 적은데다 표음문자의 기능을 지녔기에 배우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된 동시에 이러한 편리성이 서양 문명을 발전시키게 된 원동력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역의 민중이 한자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무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文字改革이 우선임을 인식하고 이를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껏 소수 지식계급에게 독점되어 온 문언문을 폐기하고 구어에 바탕을 둔 백화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자에 표음기능을 부여하려고 라틴자모를 본 딴 拼音字母를 만들기 시작하여 “國語羅馬字拼音法式(1928반포)”와 “拉丁化新文字(1931.9반포)”와 같은 문자 사용의 실습을 거쳐 1958년 2월 “漢語拼音方案”을 공포하였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보완 수정해 가는 실정이다. 한어병음방안을 통해 각 방언 지역에 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게 되어 문맹률을 낮추는 등 다방면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종전의 ‘보고 쓰는’ 독해 위주의 중국어에서 ‘듣고 말하는’ 의사 소통 중심의 중국어로 바뀌어 가면서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표준 중국어의 발음 체계를 현대 음성학 각도에서 비중을 두어 연구하기도 하고, 서구 어법 개념을 빌어 중국어 문장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써 다각적으로 중국어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중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근세기에 이르러 의사소통 중심의 중국어 회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사실 우리 나라에서의 중국어의 회화 교육의 전통은 매우 悠久

하다. 일찍이 세종(1419-1450재위)은 한자의 표음기능의 不在를 看破하여 “훈민정음(1443)”을 창제하였다. 훈민정음(한글)은 발음 부위와 발음 방법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체계로서, 28개의 기본 글자꼴을 다시 발음의 이치에 따라 변형시키면 세상의 어떤 발음 체계도 모두 표기해낼 수 있는 표음글자 체계였다. 예로 《東國正韻》에는 이상적인 조선 한자음 체계가 설정되어 있었고, 《洪武正韻譯訓》에는 15세기 중국 북방음 체계가 기재되어 있었다. 《東國正韻》, 《洪武正韻譯訓》 모두는 당시 우리말체계에는 없는 음이더라도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꼴을 “ㄱ·ㄷ·ㅂ·ㅈ·ㅊ·ㅌ”처럼 連書하거나 “ㅍ·ㅍ·ㅍ”처럼 並書하기도 하고 또 “ㅈ·ㅊ·ㅊ·ㅊ·ㅈ·ㅊ·ㅈ·ㅊ·ㅊ”처럼 발음 방법에 의거하여 글자꼴을 변형시킴으로써 중국어 발음체계를 나타낼 수 있었고 또 이에 합당한 글자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곧 한자가 ‘공용 문자’의 개념으로서 고대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결속시켜 역사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글자로 존재해 왔다면, 한글은 세계의 어느 문자와는 달리 심오한 학문적 바탕 위에 자연스럽게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체계로서,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 탄생된 한자의 고질적인 표음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차원의 소리글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글은 말하고 듣는 회화 중심의 중국어 교육에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있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조선시기의 중국어 교과서인 《直解小學》과 중국어 회화 교본인 《老乞大》, 《朴通事》<sup>2)</sup>류, 중국어 사전인 《譯語類解》<sup>3)</sup>, 《方言集釋》<sup>4)</sup>, 《華音啓蒙》<sup>5)</sup>등은 모두 한글로 중국어 음을 표기한 專著였기에 정확한 중국어 음을 구사하면서 중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실용 중국어 회화교육을 위한 기구가 따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려 충렬왕 2년(1276)에는 “通文館”이

2) 《老乞大》·《朴通事》 고려말에 저작된 것으로 보이는 《老乞大》와 《朴通事》는 조선조 중국어 실용회화 교과서로 애용되어 왔으나 아직 정확한 편찬자 및 편찬년대조차 밝혀있지 않다. 세종실록 세종 16년 6월조에 “주자소에서 인간한 노걸대·박통사를 승문원과 사역원에 나누어 주다. 이 두 책은 중국어를 번역한 책이다(頒鑄字所 印老乞大朴通事于承文院司譯院 此二書 譯中國語之書也)”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책은 조선초부터 중국어회화교과서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 《老乞大》는 중국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고려 상인이 도중에 중국 상인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여행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내용으로 하고, 《朴通事》는 중국의 歲時·娛樂·婚喪·宗教 등 비교적 고급 회화를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후에 두 책은 훈민정음으로 번역된 후 다시 언해되었으며, 수차 수정·증보되어 조선조 후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두 책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치되었는데, 조선 초 태조 2년(1394)에는 이를 “司譯院”으로 개명하여 전문적인 통역사를 양성하고 외국어 교육을 관장케 하였다. 외국어 교육 중에서는 특히 漢學과 중국어 학습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당시 중국어는 제1외국어로서 크게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한말인 1895년 외국어학교의 설립으로 외국어 교육이 전문화되었으며 그 후에는 官立漢城漢語學校로 독립되어 중국어교육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외국어학교는 문을 닫게되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중국어 교육에서 보인 이러한 전통은 계승될 수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1949)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40여 년 동안의 정치 이념의 차이가 상호 교류를 단절시킨 주된 원인이었다. 그 결과 의사 소통 중심의

書名	編者	刊行年代	書名	編者	刊行年代
(漢語) 老乞大	未詳	고려말 ?	重刊老乞大諺解	李洙 等	正祖 19년(1795)
(翻譯) 老乞大	崔世珍	中宗 9년(1514)	(漢語) 朴通事	未詳	고려말
老乞大諺解	邊暹 外	顯宗 11년(1670)	(翻譯) 朴通事	崔世珍	中宗 9년(1514)
老乞大新譯	邊暹 外	英祖 37년(1761)	朴通事諺解	邊暹 外	肅宗 3년(1677)
新譯老乞大諺解	邊暹 外	英祖 39년(1763)	朴通事新譯	金昌祚 外	英祖 41년(1765)
重刊老乞大	李洙 等	正祖 19년(1795)	新譯朴通事諺解	金昌祚 外	英祖 41년(1765)

- 3) 《譯語類解》: 1690년(肅宗 18년)에 司譯院의 鄭昌周·尹之興·趙得賢 등에 의해 간행된 중국어 어휘자료집. 각 항마다 먼저 한자로 쓰여진 중국어 단어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하였고 그 아래에 다시 국어로 그 의미를 표기하였다. 발음은 왼쪽에는 正音, 오른쪽에는 俗音의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 4) 《方言集釋》: 1778년(正祖 2년) 洪命福 등이 편찬한 4권 2책의 필사본. 원명은 《方言類釋》임. 韓語·漢語·淸語·蒙語·倭語의 對譯語彙集으로서 한자로 된 중국어 단어를 표제어로 삼아 그 아래에 이 단어에 대한 한국어를 국문으로 대역해놓고 다시 그 아래에 漢語·淸語·蒙語·倭語의 순으로 국문으로 대역해놓았다.
- 5) 《華音啓蒙》: 1883년(고종 20년) 역관 李應憲이 지은 것으로서 華音 즉 중이 지방과 시대에 따라 문장에서는 통용이 되나 어음이 서로 통하지 못하여 예부터 《老乞大》《朴通事》등 많은 저서들이 있었으나 폐단이 있음을 통감하여 상용되는 백화문으로 간략히 편집하여 지은 책이다. 내용은 중국어의 일상회화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千字文·百家姓·天干地支·28戌·算數의 글자 음을 국문으로 표기하였고 “華音正俗變”이라고 하여 千字文과 百家姓을 표본으로 표준음과 속음을 우리말로 표기하여 구분하기 편하게 하였다. 《華音啓蒙諺解》도 있다.

중국어교육보다는 독해 중심의 중국어 교육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92년 수교와 더불어 중국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국어 학습이나 중국어 교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6. 9.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8500여 명이 유학하였는데 본과과정에 3280명 석사과정에 500여명, 박사과정에 300여명, 중국어 연수자로 4420명이 있었다.<sup>6)</sup> 중국어의 수요는 더욱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III. 중국어 교육 현황

중국어 교육 현황을 살피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구분해 설문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sup>7)</sup> 이미 정리된 통계자료를 인용하기도 하였고 교육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분석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먼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살핀 뒤 교육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중국어를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 현황

##### 1) 고등학교 '99학년도 중국어 선택 현황

###### (1) 전국의 중국어 교과 선택 학교 수<sup>8)</sup>

편성현황	계열 대비 학교 수		소계	계
단수교과	일반계	10	24	243
	실업계	14		
복수교과	일반계	188	219	
	실업계	31		

6) 당시 駐中韓國大使館이 제공한 자료를 참조함.

7) 고등학교에 관한 설문은 서울, 경기지역의 교사를 중심으로 의뢰한 결과 46명이 응답하였고, 대학에 관한 설문은 한국중국어언어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2명이 응답하였다.

8) 교육부 학교정책과(720-3046 성옥기 연구사) 제공 자료.

중국어를 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는 전국적으로 243개 교이다. 그 중 일반계 188개 학교가 중국어를 다른 제2외국어와 같이 개설하고 있다. 중국어만을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24개교이다. 과목별로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 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 목	선택 학생 수	%	비 고
독 어	357,424	26.6	
일 어	242,864	18.1	
스페인어	16,942	1.3	
중국어	95,376	7.1	243개교
일본어	625,655	46.6	
러시아어	4,738	0.3	(33개교)
아랍어			7차교육과정부터 도입
계	1,343,099	100	

1999. 3. 1현재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 수는 95,376으로 선택율은 7.1%이다.

(2) 서울시 중국어 교과 선택 학교 수<sup>9)</sup>

편성현황	일반 계열		실업 계열		특목계(외)	소계	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단수교과		1	2	1		4	43
2복수교과	8	14	1		1	24	
3복수교과	3	4			1	8	
4복수교과	3(상계)				1	4	
5복수교과	1(중경)					1	
6복수교과					2	2	
소계	15	19	3	1	5		

서울시내에서는 43개교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다.

(3) 외국어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

9)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실(399-9369 김성기 장학사) 제공 자료.

외국어고는 중국어 교육이 비교적 강도 높은 특수목적계열고교이다. 명덕외고가 2복수교과 중 하나로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이외에, 이화여외고가 3복수교과로서, 대원외고가 4복수교과로서, 대일외고가 6복수교과로 중국어를 선정하고 있다. 명덕외고의 경우 최소 1명 전임교사가 3명의 보조교사와 함께 2, 3학년 50명 단위 10개 교실 및 중국어반 2개 교실의 수업을 진행하며,<sup>10)</sup> 회화중심 수업에는 기타 교과와 협조하여 25명 씩 분반 수업하기도 한다.<sup>11)</sup>

#### (4)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

일반 공립고등학교는 일부 특성화 학교를 설정, 3복수 이상 제2외국어를 운영하였으나, 상계고등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2명 초빙 규정을 완화하고, 단위 수를 낮추어, 저학년부터 2명 전임교사에 의거 10단위(1, 2학년 학기 당 2단위, 3학년 학기 당 1단위) 수준으로 축소운영하고 있다.<sup>12)</sup>

#### (5) 3복수교과 고교의 중국어 교육

3복수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금옥여자고등학교의 경우, 1명 전임교사가 1, 2학년 각 3개 교실, 3학년 1.5개 교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5개 교실은 중국어와 일어 혼합 반을 나타낸다. 일반 고등학교는 시간 안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회화를 따로 수업하지 못하며, 50명 단위 분반 교실에서 교재(특히 상권)를 소화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6) 2복수교과 고교의 중국어 교육

2복수교과 선택 고교의 경우 학년 당 50명 단위 5, 6개 교실 학생들을 2개 학년간 도합 2명의 전임교사가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공동필수교과 수업 기간인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간에 걸쳐 학기 당 2단위, 도합 8단위 수업을 진행한다. 자율 선택을 존중하기도 하며, 때로는 남학생 중국어, 여학생 불어 등 지정교과로 운영하기도 한다.

10)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이현아교사 665-8818) 제공 자료.

11)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국제교류부장 2204-1524) 제공 자료.

12) 상계고등학교 중국어교과(김미예교사 931-8133) 제공 자료. 축소 운영하기 전에는 학기당 4단위를 교육하기도 하였음.



## (7) 단수교과 고교의 중국어 교육

중국어 단수교과 선택 고등학교는 3명 전임교사가 전학년을 공동 지도하여 다양성을 높이고 있으나, 2명의 교사가 1개 교실을 team-teaching 하는 것은 아니다.<sup>13)</sup>

대학		전문대학	
중문과	70대학	중국어과	3
중문학과	4	관광중국어통역과	4
중국어과	15	관광중국어학과	3
중국어학과	6		
학과총계	95	학과총계	10

## 2) 대학에서 중문과, 중국학과, 중국어과가 설치된 현황

전국적으로 105개 대학에 중국어문학과가 있다. 학교마다 전공으로 표방한 대로 강좌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국어 교육 방식은 서로 다른 실정이다.

한편 한국중국어언어학회가 1990년 창립되어 중국문자학, 성운학, 고문법학, 현대중국어문법에 관한 논문 발표회를 갖으며 학회 지를 내고 있다. 한편 중국어교육을 대상으로 한 학회인 한국중국어교육학회가 1993년 설립되었지만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아직 학보로 출간되지 못한 상황이다.

## 2. 설문에 나타난 교육현장의 상황

설문은 (1)발음, (2)교재, (3)교육매체, (4)교육환경, (5)원어민 강사, (6)중국어 교육상의 주 관심사, (7) 중국어교육정책을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13) 경성고등학교 중국어과(염주협교사 3140-1168) 제공 자료.

1) 발음

문항	1. 보다 정확한 발음교육을 위해 교사가 노력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	자신의 발음을 검정 받고 정확한 방법을 연습하도록 한다.	26	13	56.5	34.2
	시청각 교재를 잘 활용한다.	7	11	15.2	28.9
	학생의 발음을 개별적으로 교정하도록 한다.	11	7	23.9	18.4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2	7	4.3	18.4
	기타	0	0	0	0
소계		46	38	100	100

문항	2.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원어민으로부터 교정받는다	12	21	26.6	58.3
	보통수준의 원어민으로부터 교정받는다.	3	1	6.6	2.7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한국인으로부터 교정받는다	1	0	2.2	0
	tape나 방송매체를 통해 스스로 교정한다.	29	14	64.4	38.8
	기타	0	0	0	0
소계		45	36	100	100

상기 도표를 통해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나 교사들이 중국어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발음구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교수들은 교사보다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tape나 방송매체를 통해하는 교정 방식에서 교사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2) 교재

문항	3. 현행 중국어 교과서가 발음지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매우 효과적이다.	0	1	0	3.2
	효과적이다.	4	2	8.8	6.4
	보통이다.	21	11	46.6	35.4
	그저 그렇다.	10	8	22.2	25.8
	개편이 절실하다.	10	9	22.2	29
소계		45	31	100	100

문항	4. 기존 중국어 교재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발음	8	16	17.7	41
	듣기	11	14	24.4	35.8
	말하기	19	4	42.2	10.2
	독해, 작문	5	1	11.1	2.5
	어휘, 문법	2	4	4.4	10.2
소계		45	39	100	100

문항	5. 중국어 교재를 재편한다면 기존 교재의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어 편찬하시겠습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어법해설	4	5	9	13.5
	어휘치환	5	10	11.3	27
	발음입문	10	11	22.7	29.7
	독해설명	1	0	2.2	0
	회화작문	24	11	54.5	29.7
소계		44	37	100	100

문항	6. 교재를 再編할 시 지문 내용에서 강화할 부분은?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중국문화	17	21	36.9	55.2
	한중관계	1	1	2.1	2.6
	한국의 문화	4	3	8.6	7.8
	실용회화	23	13	50	34.2
	고전명작	1	0	2.1	0
소계		46	38	100	100

현 교재가 발음지도에 만족스럽지 못함을 보이는 동시에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보였다. 특히 현재 채용해 쓰고 있는 교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교사들은 말하기 부분을 들었고 교수들은 발음부분과 듣기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교재를 재편한다면 교사들은 회화 작문에 비중을 두어 편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교수들은 발음입문과 회화작문에 관심을 갖고 편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수와 교사 모두가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용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 3) 교육매체

문항	7.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과에서 특별히 보완하거나 시정해야 할 사항은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각 과의 본문 내용에 적합한 시청각 교재의 개발	13	23	92.8	95.8
	각 과의 연습문제를 보강	0	0	0	0
	각 과에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를 적절하게 안배	1	0	7.1	0
	본문을 응용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Role Play 등)	0	1	0	4.1
	기타	0	0	0	0
소계		14	24	100	100

문항	8. 카세트 tape이나 방송매체 교육이 정확한 구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	22	42.2	57.8
	필요하다.	25	16	55.5	42.1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1	0	2.2	0
	오히려 혼돈을 일으킨다.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		45	38	100	100

문항	9. 중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발해야 할 교육매체는?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발음교육 프로그램	8	6	17.7	15.7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시청각 교재	31	30	68.8	78.9
	인터넷 사이트	2	0	4.4	0
	교육방송의 질적 향상	0	0	0	0
	각 과에 상응하도록 짜인 TV 프로그램	4	2	8.8	5.2
소계		45	38	100	100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시청각 교재를 개발하거나 정확한 발음교육을 위해 그것과 상응하는 교육 매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주의할 만하다

4) 교육환경

문항	10.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어학실습실을 비롯한 시청각 교육실이 있습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있다.	13	34	28.8	94.4
	없다.	31	2	68.8	5.5
	계획은 있다.	1	0	2.2	0
	필요하나 계획을 세울 형편이 못 된다.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		45	36	100	100

응답한 교사들의 1/3은 어학실습실이 있다고 답하였다. 대학은 거의 어학실습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사용률이 검토되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문항	11. 효과적인 중국어 교육을 위해 학급 단위를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	15-20명	29	37	64.4	97.3
	20-25명	10	1	22.2	2.6
	25-30명	6	0	13.3	0
	30-40명	0	0	0	0
	40-50명	0	0	0	0
소계		45	38	100	100

중국어 교육에서 정확한 발음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수업은 학급단위를 15명에서 20명단위로 분반할 때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문항	12. 중국어 발음지도할 때 지도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은?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음성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부족	9	0	19.5	0
	학생들의 중국 발음에 대한 생소함	4	6	8.6	15.7
	많은 인원의 학급으로 인해 개별적인 지도가 힘들	30	30	65.2	78.9
	발음지도를 위한 교수 방법의 미개발로 인한 어려움	3	2	6.5	5.2
	기타	0	0	0	0
소계		46	38	100	100

교사와 교수 모두가 발음지도의 난점이 학급을 구성한 인원수가 많은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들었으며 교사는 그 다음으로 음성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을 꼽았다.

### 5) 원어민 강사

문항	13.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있다.	5	34	11.3	94.4
	없다.	36	0	81.08	0
	계획은 있다.	0	2	0	5.5
	필요하나 계획을 세울 형편이 못 된다.	3	0	6.8	0
	기타	0	0	0	0
소계		44	36	100	100

문항	14. 고등학교에 중국어를 담당하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을 배치하자는 의견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지	매우 바람직하다.	20	5	44.4	13.8
	바람직하다.	20	18	44.4	50
	별 상관없다.	2	4	4.4	11.1
	별로 도움이 되지 못 한다.	3	7	6.6	19.4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0	2	0	5.5
소계		45	36	100	100

대학에서 원어민 교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답하였고 고등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중국어 교육상의 주 관심사

문항	15.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	발음	19	24	42.2	63.1
	듣기	12	5	26.6	13.1
	말하기(회화)	13	7	28.8	18.4
	독해, 작문	0	0	0	0
	어휘, 문법	1	2	2.2	5.2
소계		45	38	100	100

문항	16. 중국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자나 피교육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	중국문화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이해	21	12	46.6	31.5
	중국인의 언어습관	6	12	13.3	31.5
	한중 양국민의 언어습관	12	13	26.6	34.2
	중국인의 사고방식	2	0	4.4	0
	한자의 이해	4	1	8.8	2.6
소계		45	38	100	100

교수들은 한중 양국민의 언어 습관을 대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학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다고 여긴데 반하여 교사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더 선행될 일로 보았다.

문항	17. 중국어 교사가 중국어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응답자(명)		백분율(%)	
		고교	대학	고교	대학
답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	10	12	22.2	32.4
	1년 정도의 현지 장기 연수	29	16	64.4	43.2
	방학 동안의 국내 연수	2	4	4.4	10.8
	방과 후의 개인 적인 노력	2	1	4.4	2.7
	국내에서 교직에 있는 중국인 과의 교류	2	4	4.4	10.8
소계		45	37	100	100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대학이나 고교 쌍방이 모두 연수를 원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일년 정도의 현지 연수를 원하고 있었다.

### 7) 중국어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본 항목은 조목에 따라 개인의 생각을 임의로 작성케 하였다. 그 결과 작성한 내용들이 문항에서 제시한 요지와 근사하지 않은 경우도 다소간 출현하였다. 또한 이미 앞에서 제시한 의견을 다시 제기해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

(1) 중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합니까?

학교 항목	고교 세부내용(빈도)	대학 세부내용(빈도)
저변확산	일관된 제2외국어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어 위상 정립의 필요성(10)	일관된 제2외국어 정책 및 위상정립, 조기교육(3) 제2외국어교육강화(2)
교사교육	어학연수 지원(12)	어학 분야교육 및 연수(6)
교실개선	교실축소(3)	교사증가, 교실축소, 능력별학급(9)
강의지원	원어민 지원(2)	공교육, 회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2)
교재개발	교재개발(1)	시청각교재 및 교재의 과학화(7)
시설투자	어학실습실 및 교육기자재(6)	시청각 시설 보완(1) 수업시간 확대(1)
교환학습	-	교환학생제도 및 학술교류정책(1)
문화자료	-	관련 내용 소개(1) 한자의 이해(2)
빈도소계	33	33

교사, 교수 쌍방은 제2외국어를 수능시험에 편성시킴으로써 중국어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교사가 더 컸다.

교사, 교수 쌍방은 어학 연수의 지원을 요망하였는데 특히 교사의 요망이 더욱 절실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어학실습실을 마련하고 시청각 교육 기자재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교수들은 시청각 교재의 개발을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2) 교육부가 정한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학교 항목	고교 세부내용(빈도)	대학 세부내용(빈도)
수능비중	강화 및 듣기 평가 실시 제안(5)	강화(5)
중요도 인식 부족	영어 편중이 국제화에 다양성을 결여, 중국어의 중요도 인식 필요(7)	영어 편중이 국제화에 다양성을 결여, 중국어의 중요도 인식 필요(1)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중국어교과 단위 축소 동향에 대하여 일관, 구체, 현실적 행정 요망(7)	-
교육방안	회화 실천을 반영한 기본어휘 설정의 필요성 및 교재수준 하향 필요(3)	문법 치중 탈피한 체계적, 종합적 방안 필요(2)
자율선택	-	적성, 희망 고려 선택 기회부여(3)
시설투자	시청각, 파견 원어민, 과밀교실축소(1)	-
선수교육	조기교육 및 한자교육 제도 강화(2)	
빈도소계	25	11



이 조목은 대부분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국제화 시대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현실적이고도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실용회화에 필요한 기본 어휘수를 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동시에 교재 수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였다.

(3)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 여부와 그 근거는?

학 교 항 목	고교, 세부내용(빈도)	대학, 세부내용(빈도)
세계화	세계화에 진취성, 다양성 추구(11)	세계화에 진취성, 다양성 추구(6)
문화개방	외국문화의 긍정적 수용, 교류(2)	외국문화의 긍정적 수용, 교류(2)
학문토양	-	대학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3)
조기교육	언어습득능력에 따른 효율 고려(4)	언어습득능력에 따른 효율 고려(2)
국가경쟁	-	국제화 시대 국가경쟁력 향상(4)
중국위상	중국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5)	-
강화부정	보다 효과적인 대학교육에 기대(2)	제도적 강화에 따른 부작용(1)
빈도소계	33	34

세계화 조류에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외국어 능력을 지니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다방면으로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4) 중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 교 항 목	고교 세부내용(빈도)	대학 세부내용(빈도)
교실규모	교실에 비해 교사가 부족하다(16)	교실이 과대하다(7) 실습환경부재(2)
교육과정	-	하급학교의 기초교육 소홀, 체계부족 및 독해위주 회화시간 부족(4)
교사연수	해외연수 및 해외교류 기회 부족(3)	연수 프로그램 미비(1)
시청교육	교육시설 부족(2)	시청교재 부족, 기자재미비(4)
교사소양	자질 개발 부족(2)	언어학적 이해나 언어능력 부족(5)
교수방법	교과서 위주의 획일화 수업, 교수법 부재(4)	외국어로서의 교수법 부재(8)
교재낙후	흥미유발에 실패(3)	실용성 부족(2)
제도한계	일관, 지속성을 잃어 환경, 여건 악화(7)	외국어교육원으로 이관, Pass or Fail 적용(1)
빈도소계	37	33

중국어 교사 수를 늘일 것을 강조하였고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수법 부재가 지적되었다. 한편 중국어 교육을 외국어교육원으로 이관시켜 Pass or Fail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하자는 안이 있었다. 경비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으나 많은 수의 학생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된다.

(5)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나 학과에서 특별히 보완하거나 설정해야 할 사항

학 교 항 목	고교 세부내용(빈도)	대학 세부내용(빈도)
시청교재	전통문화, 상황회화, 기초회화 등의 그림, 비디오, 멀티교재(5)	비디오 등 기자재 개발(4)
시청각실	중국어 전용 Lab실, 닥터위콤(5)	활용 가능한 학습장 마련(7)
정보자료	공유하는 정보 확보 및 컴퓨터 활용(3)	인터넷 활용(1)
프로그램	교사학생 해외연수 및 생활관 교육, 혼련, 흥미유발 학습, 회화 장면, 한자교육, 1:1수업 프로그램(7)	LCD프로젝트, 교사 자신의 효율적 어학수업 프로그램(2)
교재개선	유의미화, 회화의 다양화, 쉬운 내용 및 점진적제도 검토안(6)	문형, 어휘 연습보강, 단계성조절, 흥미 있는 주제(3)
교실규모	축소(1)	10내외, 15-20 축소(6)
강의형태	원어민 병행 강의(2)	원어민과의 팀티칭(1)
강의시수	-	확대조절(3)
교사훈련	중국문화원 교류 등 정기화(1)	-
빈도소계	30	28

시청각 교재의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회화 활용 가능한 학습장 마련, 수강 학생 수의 하향 조정, 교재 개선 등이 제기되었다.

(6) 기타제언

학 교 항 목	고교, 세부내용(빈도)	대학, 세부내용(빈도)
교실축소		교실의 축소(1)
시청활용		시청각실의 문턱을 낮추기(1)
정보교환	교사들간, 혹은 교수와의 유대와 교류를 확대 정보 교환의 기회를 늘리기(2)	학술, 문화, 정치, 경제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교수방법 모색(1)
사회인식	제2외국어의 실용성과 중요성의 범사회적 인식(1)	중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야 한다(1)
정책의 일관성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이 표류하는 비극에 대한 각성 추구(1)	
대 학교 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HSK, 각종경시대회 성적이 대학입시에 적극 반영되는 연결점 마련하기(1)	
어학연수	어학연수 기회가 자주 주어졌으면(1)	
빈도소계	6	4

교사들은 시청각 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이 시설 사용의 빈도를 높힘으로써의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안을 내었다. 동시에 교사와 교수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고교 중국어 교육과 대학 중국어 교육의 연계가 이어질 수 있다면 중국어 조기교육의 가능성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IV. 중국어 교육의 개선안

### 1. 발 음

중국어 교육에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철저성을 기하고 있었으나, 과밀 학급이나 분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기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확한 발음 구사를 위해 테이프나 방송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요령 있는 설명이 첨가되었으면 한다. 교사는 음성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을 발음지도의 난점으로 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 2. 교재

교재는 발음과 ‘말하기’를 학습하고 지도하는데 편리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설문에서 교사들은 회화 작문에 비중을 두어 편집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고 교수들은 발음입문과 회화작문에 관심을 갖고 편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므로 앞으로 쓰일 교재는 발음편과 회화 작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실용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재로 편찬해야 한다.

## 3. 교육매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시청각 교재를 개발하고 정확한 발음교육을 위해 그것과 상응하는 교육 매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점을 주목할 만 하다. 교재 내용이 현장감이 수반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매체가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청취력 향상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관건인데 우리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아직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야함은 물론 청취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청취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VCD가 다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활용해 교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컴퓨터가 동반된 어학실습실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 4. 교육환경

고등학교에서 어학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3에 불과하였다. 고등학교에서도 점차 어학실습실을 마련해 감으로써 조기 외국어 교육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은 거의 어학실습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가 문제이므로 이를 적절히 사

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시설을 확충해 가야 할 것이다.

중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려면 경비를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수강생의 단위<sup>14)</sup>를 20명-25명 이하로 조정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말을 주고 받으며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교사와 교수 모두가 발음 지도의 난점이 과밀한 학급 구성에 있음을 제일 큰 문제로 든 점을 중시해야 한다.

## 5. 원어민 강사

외국어 교육에서 원어민 교수나 강사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가 필요성이 강조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만 원어민 강사를 두고 있으나 향후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원어민을 채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한국어의 특성을 체득하여 중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원어민 교수를 선발해야 하며, 선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들이 원만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본국인 교사와 함께 토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혀 가야 한다.

## 6. 중국어 교육상의 주 관심사

교수들은 한중 양국인의 언어 습관을 대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학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다고 여긴데 반하여 교사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더 선행될 일로 보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저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제 하에 work-shop을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도가 될 것이다.

중국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나 교사 모두가 일년 정도의 현지 연수를 원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수의 기회가 드물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어 교사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교육

14) 대학에서의 수강단위를 조사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 적은 수의 단위는 20명이었고 제일 수의 단위는 100명을 초과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50명 단위였고 S대의 경우는 40명 단위였다.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제도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엄익상은 이미 <한국과 미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 방법 비교><sup>15)</sup>에서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다방면에서 집약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1) 교육 목표를 정확히 하자.
- 2) 과목별, 단계별로 유기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자.
- 3) 교육 목표와 방법에 부합하는 교재를 선택하자.
- 4) 표현(실연)위주의 흥미로운 강의를 하자.
- 5) 현지 연수를 제도화하고 학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
- 6) 원어민 교수와 조교를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목적 언어 환경을 최대한 제공하자.
- 7) 외국어 강사 훈련을 하자.
- 8) 어학 실습실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어 '도움방'을 개설하자.

이러한 개선책 중 특히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 중의 봉착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中國語文自中心(Independent Learning Center)과 같은 ‘도움방’을 마련하여 이력서나 편지를 쓰거나, 각종 문서 및 보고서를 작성할 뿐 아니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요령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건설적인 견해로 생각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교수에게 강의 외로 별도의 지도를 할당하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7. 중국어교육정책

앞서 제기한 바람직한 다양한 견해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중국어교육 학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에 건의하면서 그 필요성을 설득해 가야 할 것이다.

15) 《어학연구》 제4집 강원대학교 논문집 1997. 12. pp. 61-78.

## V. 중국어 교육의 의의와 과제

중국어교육은 중국어 학습을 발단으로 중국의 우량한 전통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중국어교육이 동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가문화와 도가문화 전통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우리의 중국어 학습은 그 효용을 높힐 수 있으며 인문정신의 가치를 더욱 선양해 갈 수 있다. 동시에 중국어 학습을 발판으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인과 다방면으로 폭 넓게 교류함으로써 한국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적극 소개하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때 중국어 교육의 의의는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이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변별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중국어 교육의 지향점을 선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중국어에 관련된 강좌의 이수만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선도해야 한다. 중국어 수준 향상이 졸업 후의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즈음의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의의를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H.S.K(漢語水平考試)의 시험에 나오는 지문 내용에 맞추어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육 경향을 시정되어야 한다. H.S.K에서 출제되는 지문 내용은 현재 중국인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실용성은 강하나 중국의 전통문화와 중국인의 생활정서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려는 내용은 적으므로 이를 감안해 중국어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계는 바람직한 내용이 H.S.K의 지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향후의 외국어 교육은 인터넷 사이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처해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용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VI. 결론

중국어 교육에서 제기된 이러한 바람직한 의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시정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정책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이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다방면으로 개진해 가는 동시에 그 반영을 위해 조직을 확대해 가야 한다.

고등학교의 중국어 반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80년 후반기에 폐과 처분한 중국어교육과를 복원시켜 중국어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졸업 후 교육현장에서 미래 사회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각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교육해 가야 한다. 아울러 중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학자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활발한 연구 모임을 유지해 감으로써 중국어교육에 파생되는 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중국어교육 방법이나 중국어 교육이 지향할 방향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되었다. 이 방면에 관심을 갖은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교육방법과 참신한 연구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중국어 교육의 질이 날로 더욱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엄익상 (1997). 한국과 미국 대학의 외국어 교육 방법 비교. *어학연구*, 4. 강원대학교 논문집
- 이종진 (1997). 중국어작문 교육 현황과 그 개선 방안. *중국어문학지*, 4.
- 李楊 主編 (1997). *對外漢語教學課程研究*. 북경어언문화대학출판사.
- 張志善 主編 (1994). *中學語文教學論*. 語文出判社.
- 중국대백과사전 교육편집위원회 (1985). *중국대백과전서(교육)*
-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1997). *교육사*.